

KCB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2024.04.01

1. 개인신용평점의 의미

(1) 개인신용평점의 정의 및 목적

개인신용평점은 개인에 대한 다양한 신용정보를 종합하여 통계적 방법에 의해 개인의 신용도를 1~1000점으로 점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향후 1년 내 성실상환 가능성(90일 이상 연체 등 불량사유 없이 신용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KCB에서는 신용거래사실에 근거한 신용정보와 고객이 직접 등록한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통계적 방법에 의해 확정된 기준에 따라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합니다.

개인신용평점은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거래를 유지·설정 시 참고지표로 활용됩니다.

<참고>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시스템(CSS) 소개

KCB와 같은 신용평가회사에서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신용평점이 있다면, 각 금융회사에서 업무목적에 따라 개발·활용하는 신용평점시스템(Credit Scoring System : CSS)이 있습니다.

금융회사 내부 신용평점시스템은 해당 금융회사의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CB사에서 제공하는 신용평점, 신용정보 및 자체 보유하고 있는 거래정보 등을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예측하는 개인신용평가모형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신청평점과 행동평점으로 구분됩니다.

금융회사는 내부 신용평점과 그 외 개인이 제공하는 직장/소득정보 등에 따라 각종 신용거래의 승인여부, 대출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며, KCB 개인신용평점은 참고지표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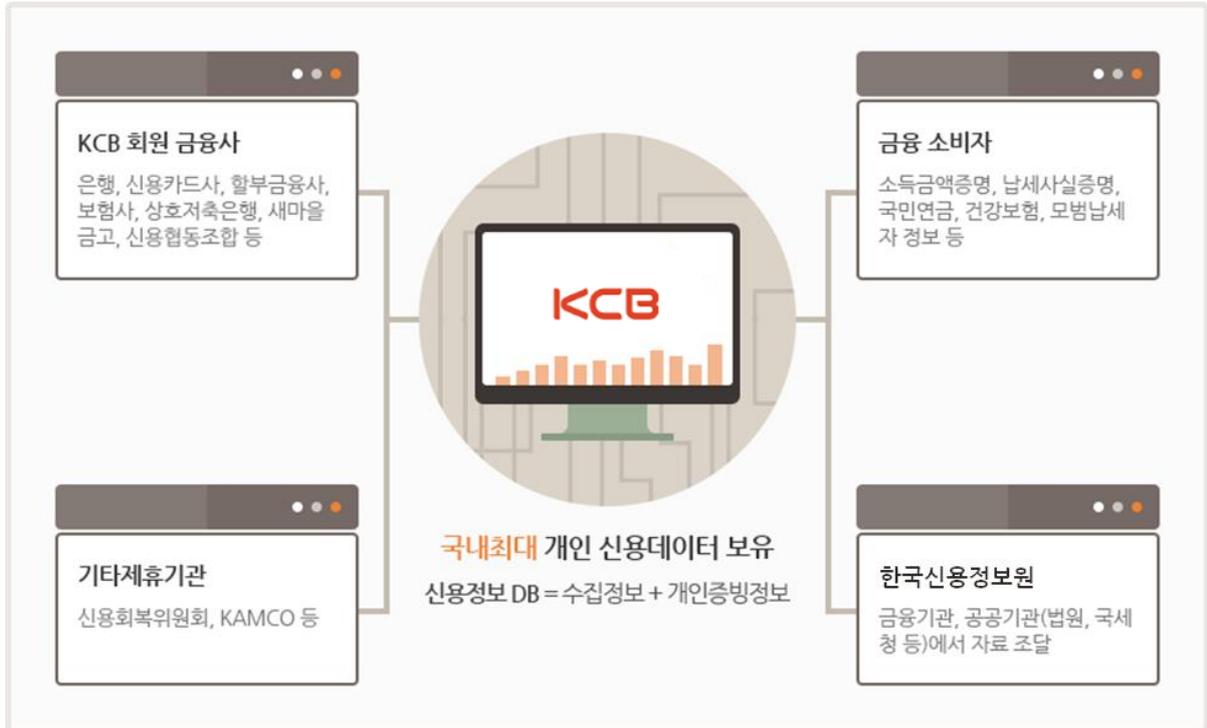
- 신청평점(Application Score) : 신용거래를 신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점으로 대출 승인여부나 신용카드 발급여부와 같은 신규 거래 개설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 행동평점(Behavior Score) : 금융기관과 현재 거래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 시점마다 향후 신용위험을 다시 평가하는 신용평점으로 대출 연장여부나 금리 변경, 신용카드 한도 상향 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2) 평가 기초정보의 수집/관리

KCB는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로부터 고객이 사전 동의^{주)}한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종합하여 KCB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거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 수집 흐름도]



*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오래된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18조 제2항 및 감독규정 제19조에 따라 기록 보존 및 신용평가 활용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주요평가요소

① 평가요소 및 활용비중

- **신용행동**에서는 개인의 신용거래이력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환이력, 부채수준,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형태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비금융/마이데이터**에서는 고객이 직접 등록한 비금융/마이데이터의 성실납부 정보, 상환능력 정보 및 건전한 신용성향을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주요평가요소	평가비중/영향도 주1)		주요평가요소 설명
			일반대상	장기연체 경험대상	
신용행동			92%	89%	
상환이력	<p>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및 그 이력에 관한 정보로 5영업일 10만원 이상 연체를 지속하는 경우부터 평가에 활용됩니다.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p> <p>신용평가에 부정적인 평가요소이며 특히 90일이상의 연체는 장기연체로 분류되어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체 상환 시 부정적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경험정보는 일정기간(90일이상 최장 5년,90일 미만 최장 3년) 활용됩니다.</p> <p>※ CB연체의 경우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2018년 말부터 적용)</p>	연체발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의 발생 건수(경험 포함)가 많아질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연체진행 지속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를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 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연체상환 후 기간경과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를 상환 후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연체의 부정적 영향이 축소·해소 됩니다. (8영업일 이전 연체 상환시 연체 이력은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중	21%	32%	(참고) 미국 FICO Score(파이코 스코어): 35%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주요평가요소	평가비중/영향도 주1)		주요평가요소 설명
			일반대상	장기연체 경험대상	
부채수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으로 대출,카드의 부채 개설 및 상환이력,실적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환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하여 채무 증가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되며 채무상환의 이력은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됩니다.	저위험대출 부분/잔액 상환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대출의 성실한 상환은 채무부담에 대한 리스크 감소요인으로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중위험대출 부분/잔액 상환	▲▲	▲	
		고위험대출 부분/잔액 상환	▲▲▲	▲▲	
		신용카드 잔액 증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미도래 잔액 및 단기카드 대출의 잔액 증가는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요인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됩니다.
		단기카드대출 잔액 증가	▼▼	▼	
		신용카드 신판위주 지속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꾸준하고 안정적인 카드거래 이용은 건전한 신용생활 지속하고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비중	24%	25%	(참고) 미국 FICO Score(파이코 스코어): 30%
신용거래 기간	신용거래기간은 대출·카드의 개설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오랜 기간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고객은 일반적인 리스크 수준이 낮게 나타나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신용거래 기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체없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비중	9%	5%	(참고) 미국 FICO Score(파이코 스코어): 15%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주요평가요소	평가비중/영향도 주1)		주요평가요소 설명
			일반대상	장기연체 경험대상	
신용거래 형태	대출의 형태(업권/상품/금리 수준 등) 및 카드이용 형태 등을 고려하며 거래형태 별 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평가에 활용됩니다.	대출거래형태			
		- 저위험대출 발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유대출의 업권, 상품속성 및 금리수준에 따라 리스크 수준이 차등화되며, 리스크 수준이 높은 대출일수록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됩니다.
		- 중위험대출 발생	▼▼	▼▼	
		- 고위험대출 발생	▼▼▼	▼▼	
		- 채무보증 발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무보증의 발생은 채무부담에 따른 리스크 수준 증가요인으로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되며, 채무보증의 해소는 리스크 수준의 감소로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활용됩니다.
		- 채무보증 해소	▲	▲	
		카드이용형태			
		- 체크카드 지속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크카드 지속 이용은 건전한 신용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신용평가에 활용됩니다.
		- 단기카드대출 이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카드대출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것은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됩니다.
		비중	38%	27%	

평가영역	평가영역 설명	주요평가요소	평가비중/영향도 ^{주1)}		주요평가요소 설명
			일반대상	장기연체 경험대상	
비금융/마이데이터			8%	11%	
비금융/ 마이데이 터	고객이 직접 등록한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도와 관계가 높은 평가요소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금융/마이데이터 성실납부 정보 등록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연금, 건강보험, 통신비, 보험료 납부 등 비금융과 마이데이터를 통해 등록된 성실상환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성실도를 판단하고 신용평가에 가점요인으로 활용됩니다.
		비금융/마이데이터 성실납부 경과기간	▲	▲	
		상환여력 보유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소득과 금융자산(수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상환 여력을 판단하여 신용평가에 가점요인으로 활용됩니다.
		신용관련 설문 응답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문 결과 건전한 신용생활과 상관관계가 높은 응답을 보인 경우 가점요인으로 활용됩니다.

주1) 제시된 비중은 해당 고객군별 평균이며, 개별 고객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평가 부문별 상세설명

i. 신용행동

- [상환이력정보] 채무의 적시 상환 여부, 과거 채무상환을 미룬 경험 정보유형 및 수집·관리

상환이력정보 부문은 채무 상환 지연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주1)}	활용기간
신용도 판단정보	한국신용정보원	100만원 이상이면서 3개월 이상인 연체 및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연체는 완료 후 1년 ^{주3)})
공공정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법원채무불이행	채무변제 완료 즉시 미활용
		500만원('10.01.01~'11.12.31는 1,000만원) 이상, 1년(3회) 이상 세금·공과금 체납	채무변제 완료 후 3년 ^{주3)}
CB 연체정보	KCB	5영업일 ^{주2)}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인 KCB 회원사 연체	채무변제 완료 후 5년 (주1 참조)

주1) 정부의 서민금융기반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11,10월부터 3개월(90일)미만 단기연체는 상환 후 최장3년까지만 신용평가에 활용

주2) 연체 중 5영업일, 해제시 8영업일 이상 활용

주3) 정부의 신용정보 활용방식 개선에 따라 '16,8월부터 세금체납정보는 상환 후 3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연체정보는 상환후 1년까지만 신용평가에 활용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채무를 적시 상환하지 않을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연체를 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만약 연체 상태라면 신속히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5영업일 이상이면서 10만원 이상 연체 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며, 특히 연체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연체 중 5영업일, 해제 시 8영업일 이상 활용)

(단, 연체이력이 1건이고 연체기간이 30일미만 연체금액이 30만원미만인 경우 평가에 미활용 (2018년 말부터 적용))

단기간 연체 후 즉시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신용평점에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연체 사유 해소 즉시 부정적인 영향은 축소되지만 연체 경험 정보는 일정기간 동안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연체 상환 후 신용평점은 연체 전으로 즉시 회복되지 않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상승합니다.

과거 연체 경험이나 기간을 고려하여 실수에 의한 연체라고 판단될 경우 평점 회복 속도는 더 빠를 수 있는 반면, 장기연체는 채무상환 후 더 오랜 기간 동안 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현재부채수준] 현재 보유한 채무의 수준

정보유형 및 수집·관리

현재부채수준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해지, 상환이력 및 이용실적 등 거래내역을 활용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대출계좌 해지 후 5년
	KCB	대출금 상환 이력	최근 1년
카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카드 해지 후 5년
	KCB	카드이용실적	최근 1년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적정 수준의 부채 이용은 신용평점에 긍정적이지만 현재부채수준이 과도할 경우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금액이 클 경우 고객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보유한 대출 및 카드 부채를 연체없이 상환한 건전한 신용이력은 신용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금융회사들이 부여한 한도(대출 및 신용카드)는 고객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융통할 수 있는 신용의 완충역할을 하며, 대출 상환의 지연 또는 잔여한도 부족 지속은 신용위험으로 판단되어 신용평점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부채의 적시상환 및 한도대비 이용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신용거래기간] 신용거래 기간

정보유형 및 수집·관리

신용거래기간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및 해지 이력을 활용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
카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신용거래기간이 장기일수록 신용평점에 긍정적입니다.**
 -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금융거래 경험을 쌓은 고객은 단기 신용거래자(예: 신용카드를 처음으로 개설한 사회초년생)보다 일반적으로 리스크 수준이

낮게 나타나므로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거래 경험이 없으면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전한 신용카드 거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신용거래가 없는 경우 보다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신용거래형태] 신용거래의 종류 및 행태**

정보유형 및 수집·관리

신용거래형태 부문은 대출·카드의 개설, 해지, 상환이력 및 이용실적 등 거래내역을 활용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활용기간
대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대출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대출계좌 해지 후 5년
	KCB	대출금 상환 이력	최근 1년
보증정보	한국신용정보원	보증 계좌 개설 및 해지 이력	보증계좌 해지 후 1년
카드정보	KCB, 한국신용정보원	카드 발급 및 해지 이력	카드 해지 후 5년
	KCB	카드이용실적	최근 1년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신용위험이 높은 거래형태를 보이는 경우, 예를 들어 고금리 유형의 대출 거래 비중이 클수록 신용평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대출을 여러 금융회사에 보유하는 것은 고객의 상환능력 대비 부채가 과도해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므로 신용평점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저금리 대출 위주로 채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용조회정보의 활용여부**

- **KCB 개인신용평점은 합리적인 금융상품을 찾는 고객 선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신용조회기록을 평가에 활용하지 않습니다.**

ii. **비금융/마이데이터**

● **비금융/마이데이터**

정보유형 및 수집·관리

비금융정보와 마이데이터 및 설문정보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신용여력 및 신용에 대한 관심과 성실도 등을 판단합니다.

정보유형	수집처	활용내용	활용기간
신용여력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KCB, 제휴채널 등	등록연소득	최근 36개월
	마이데이터	금융자산(수신 등)	최근 12개월
성실상환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KCB, 제휴채널 등	통신요금/건강보험/국민연금 /공공요금 등의 등록정보	최근 36개월
	마이데이터	통신요금/보험료	
신용성향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신용관련 설문 응답	최근 1년

개인신용평점에 미치는 영향

- (신용여력) 개인이 직접 등록한 소득 및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여력이 일정 수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신용평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신용여력이 높은 경우 신용생활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판단되어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성실상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통신요금, 공공요금, 보험료 등의 납부정보 등록은 신용평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비금융거래 및 마이데이터를 통해 성실하게 납부한 내용이 증빙될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용성향) 고객이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분석하여 신용성향을 측정합니다.

 - 설문 응답 결과가 신용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가점요인으로 활용됩니다.

2. 평가모형의 성능지표

(1) 성능모형의 적정성

성능지표란 개인신용평점의 목표인 각 개인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히 예측했는가(예측력)와 그 결과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안정성)를 통계적 기법을 통해 수치화한 것입니다.

구분	성능지표	적정기준치 ^{주)}	KCB 개인신용평점
예측력	K-S(Kolmogorov-Smirnov)	50 이상	충족
	Divergence	1.0 이상	충족
	GINI 계수	0.6 이상	충족
안정성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0.1 미만	충족

주) 통상적 실무기준의 예시를 언급한 다음 문헌 참조

Elizabeth Mays, Handbook of Credit Scoring, Glenlake, 2000

Raymond Anderson, The Credit Scoring Toolkit,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고> 개인신용평점 모니터링

- 당사는 개인신용평점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기와 같은 다양한 성능지표를 정기적으로 측정/검토하는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수 고객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쳐 개인신용평점의 전체적 분포와 성능에 현저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환경 변화 예)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신용거래 행태 변화 예) 특정 금융상품의 이용 증가 추세
 - 정부의 정책 변경 예) 소액/단기연체 활용기간 축소
- 개인신용평점 모니터링을 통해 KCB 개인신용평점의 성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2) 개발인력의 적정성

- 개발 인력 현황('24.3월초 기준)
 - 신용평점모형 등 솔루션 개발인력: 79명 (개인신용평점 개발·운용 종사 인원 8명 포함)
 - 모형 개발 및 운용 경력 3년 이상 인력은 84%
- 당사의 인력구성은 개인신용평가업 허가 요건(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6조)을 충족하고 있음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제1호 : "제2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고용인력 10명 이상을 갖출 것"

(3) 성능지표 산출원리

- 개인신용평점을 산출하는 통계모형은 우량고객과 불량고객을 잘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높은 점수를 받은 고객이 우량할 확률이 크고, 낮은 점수를 받은 고객이 불량할 확률이 클수록 보다 우수한 예측력을 가진 모형입니다.

예측력 성능지표로 K-S(Kolmogorov-Smirnov) 통계량, Divergence, GINI계수 등을 활용합니다.

-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에 개인신용평점 분포가 민감하게 변동하지 않는 성질을 안정성이라고 하며, 점수대별 고객 구성비가 일정하게 유지될수록 우수한 안정성을 가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성능지표로 PSI(Population Stability Index) 등을 활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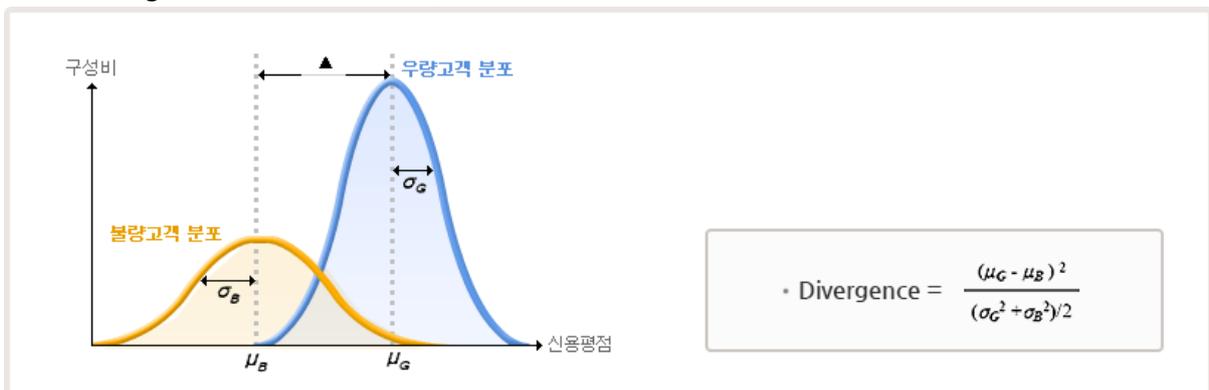
① K-S (Kolmogorov-Smirnov) 통계량

K-S 통계량은 신용평점별로 누적 우량 구성비와 누적 불량 구성비를 산출한 후, 그 차이의 최대값으로 모형의 성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K-S 통계량이 클수록 변별력이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② Divergence

Divergence는 불량고객 분포와 우량고객 분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래 그래프와 같이 신용평점에 따른 불량고객 분포와 우량고객 분포 간의 거리가 멀수록(▲가 클수록), 각 분포가 넓게 퍼지지 않고 집중될수록(σ_G , σ_B 가 작을수록) Divergence의 크기가 커지며, 수치가 클수록 좋은 변별력을 의미합니다.



③ GINI(지니) 계수

GINI 계수는 누적유량 구성비를 x축으로, 누적불량 구성비를 y축으로 나타낸 그래프와 Random Curve 사이의 면적의 합에 비례하며, 면적이 넓을수록 높은 변별력을 의미합니다.



④ PSI (Population Stability Index, 모집단 안정성 지표)

모집단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기준시점 대비 현재 분포의 차이를 나타내며 수치가 클수록 고객군의 성향에 변화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ullet \text{ PSI} = \sum_{\text{점수대별}} (\%O - \%E) \cdot \ln \frac{\%O}{\%E} \quad (\%E : \text{기준시점 구성비}, \%O : \text{현재 구성비})$$

[예제] PSI 계산

점수대	기준시점 고객수	현재 고객수	기준시점 구성비(%E)	현재 구성비(%O)	%O-%E	ln(%O/%E)	PSI
합계	3,000	3,200	100%	100%	-	-	0.0145
76~100	600	700	20.0%	21.9%	1.9%	0.0896	0.0017
51~75	1,000	900	33.3%	28.1%	-5.2%	-0.1699	0.0088
26~50	1,000	1,100	33.3%	34.4%	1.0%	0.0308	0.0003
0~25	400	500	13.3%	15.6%	2.3%	0.1586	0.0036
합계	3,000	3,200	100%	100%	-	-	0.0145

→ PSI = 0.0145

3. 개인신용평가 관련 통계자료

(1) 신용점수별 인원분포

신용점수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950 이상	9,066,974	9,895,384	10,639,706	11,675,675	13,146,532
900 이상	8,155,230	8,644,751	8,943,447	8,854,793	8,346,514
850 이상	4,279,662	4,232,387	4,301,649	4,226,072	3,965,491
800 이상	3,405,757	3,340,750	3,287,942	3,109,703	2,861,332
750 이상	5,944,602	5,733,869	5,587,137	5,475,377	5,335,394
700 이상	7,661,131	7,574,671	7,595,314	7,659,156	7,945,186
600 이상	5,549,721	5,375,472	5,275,306	5,125,537	5,013,031
300 이상	1,380,086	1,294,001	1,085,546	1,123,038	1,079,204
300 미만	2,045,470	1,939,427	1,798,557	1,765,075	1,841,049
합계	47,488,633	48,030,712	48,514,604	49,014,426	49,533,733

(2) 신용점수별 불량률^{주1)} 분포^{주2)}

신용점수	2018년말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950 이상	0.03%	0.03%	0.03%	0.04%	0.05%
900 이상	0.08%	0.08%	0.07%	0.10%	0.14%
850 이상	0.19%	0.18%	0.16%	0.22%	0.30%
800 이상	0.34%	0.33%	0.29%	0.40%	0.53%
750 이상	0.70%	0.66%	0.59%	0.78%	1.03%
700 이상	1.62%	1.62%	1.45%	1.91%	2.68%
600 이상	3.94%	3.83%	3.49%	4.39%	5.98%
300 이상	16.94%	16.03%	14.35%	17.39%	22.22%
300 미만	94.30%	92.85%	92.94%	94.44%	94.64%
전체	1.42%	1.25%	1.03%	1.16%	1.50%

주1) 불량률은 향후 1년내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00년말 불량률은 00년말 대상자의 00+1년도말 실적불량률임

주2) 불량률은 정상 금융거래 고객에 한하여 산출함

(3) 신용거래고객의 신용점수별 인원 분포

● 대출거래고객

신용점수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950 이상	3,888,494	4,322,547	4,565,687	4,853,610	5,471,223
900 이상	4,116,181	4,430,488	4,673,494	4,526,373	4,166,917
850 이상	2,070,154	2,092,542	2,158,745	2,077,518	1,850,546
800 이상	1,820,256	1,762,726	1,731,758	1,641,497	1,517,843
750 이상	1,766,458	1,636,418	1,584,826	1,519,638	1,531,566
700 이상	1,195,784	1,112,621	1,143,153	1,139,641	1,201,552
600 이상	2,268,819	2,159,887	2,163,441	2,116,713	2,096,527
300 이상	1,232,826	1,152,325	975,407	1,015,762	984,324
300 미만	1,238,618	1,188,159	1,088,061	1,069,767	1,171,623
전체	19,597,590	19,857,713	20,084,572	19,960,519	19,992,121

● 카드거래고객

신용점수	2019년말	2020년말	2021년말	2022년말	2023년말
950 이상	9,062,094	9,890,843	10,635,303	11,670,642	13,140,668
900 이상	8,061,386	8,549,475	8,844,830	8,755,197	8,246,122
850 이상	3,887,191	3,862,065	3,947,300	3,903,341	3,647,328
800 이상	2,397,740	2,299,793	2,252,479	2,178,847	2,008,322
750 이상	1,715,480	1,514,377	1,430,478	1,374,455	1,363,649
700 이상	1,178,939	1,076,974	1,055,497	1,040,358	1,077,392
600 이상	2,076,464	1,935,078	1,928,284	1,925,127	1,917,309
300 이상	994,275	911,903	768,825	826,941	801,847
300 미만	742,879	717,349	668,779	707,463	815,428
합계	30,116,448	30,757,857	31,531,775	32,382,371	33,018,065

※ KCB 개인신용평점 이용 현황

- 금융회사는 KCB 개인신용평점을 금융거래의 의사결정 등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 중의 하나로 활용하며, 절대적인 의사결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거래 가부 의사결정은 각 회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23년말 기준)

업종	이용기관수
은행	24
신용카드	19
할부금융	44
보험/보증	26
상호저축은행	40
상호금융	4
기타	93
합계	250

※ 신용점수 관련 법령내용 공시

- 각 법령에 해당하는 점수는 매년 4월 1일자로 변경됩니다

(23년말 기준)

관련법령	내용	내용	기준점수
여전·저축은행·상호금융 감독규정	중금리 대출시 신용공여 한도 우대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865점 이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675점 이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소액신용대출사업 지원대상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700점 이하
여전업 감독규정	신용카드 발급 가능자	개인신용평점 상위 93% 또는 장기연체가능성 0.65% 이하	621점 이상

※ 개인신용평가체계 공시 연혁

일시	내용
2020/12/29	K-Score2.0 평가체계 안내 게시
2021/07/01	공시 연혁 추가
2022/04/01	21년말 기준 업데이트
2023/04/01	22년말 기준 업데이트
2024/04/01	23년말 기준 업데이트